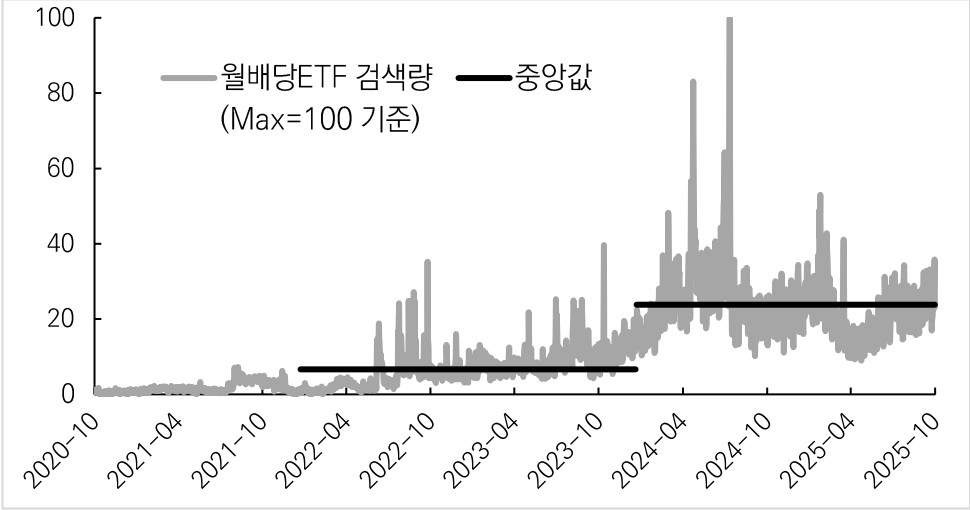
글로벌 자산의 배당 매력 알아보기

이제는 많은 투자자들이 국내 시장의 경계를 넘어 해외 시장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유행이 아닌 효과적인 자산 배분과 더 다양한 기회를 탐색하기 위한 전략적인 결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해외주식과 해외 ETF 배당투자가 매력적인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해외 자산의 배당과 관련한 특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주식/ETF 와 국내주식의 배당 차이

해외주식과 해외 ETF, 특히 미국 시장에 상장된 주식은 국내주식보다 높은 배당 수익률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글로벌 시장에 기반한 성장성 및 기업의 재무적 안정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배당 귀족'으로 불리는 일부 기업들은 장기간 동안 배당을 증가시켜왔으며, 이러한 안정적인 배당 정책은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국내 투자자들에게도 최근 월배당 투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최근 5 년간 월배당 ETF 검색량 추이를 살펴보면, 검색량이 증가하는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배당ETF 검색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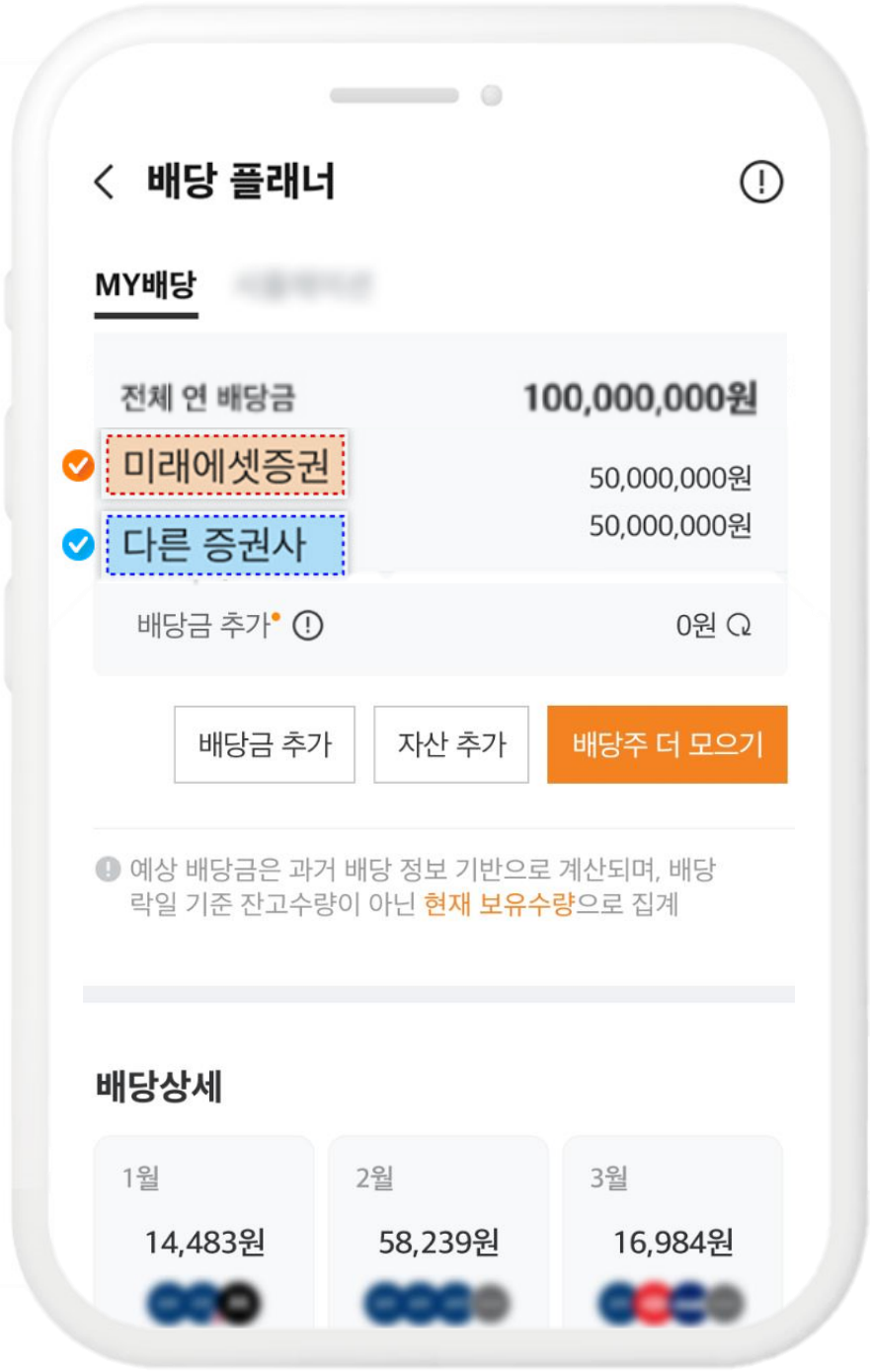
출처: 네이버 데이터랩, 기준일: 2020.10.12~2025.10.12 / * 최대 검색량을 100 으로 한 상대 검색량 추이

배당 플래너 소개 및 활용법

당사 MTS 에서는 사용자가 선택한 주식이나 ETF 의 과거 배당금을 확인할 수 있는 '배당플래너'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기능은 투자자가 장기적인 배당 투자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 배당플래너의 기능을 아래에 소개하오니, 투자자들은 해당 메뉴에서 필요한 기능을 활용하여 원하는 현금흐름을 구성하는데 활용해보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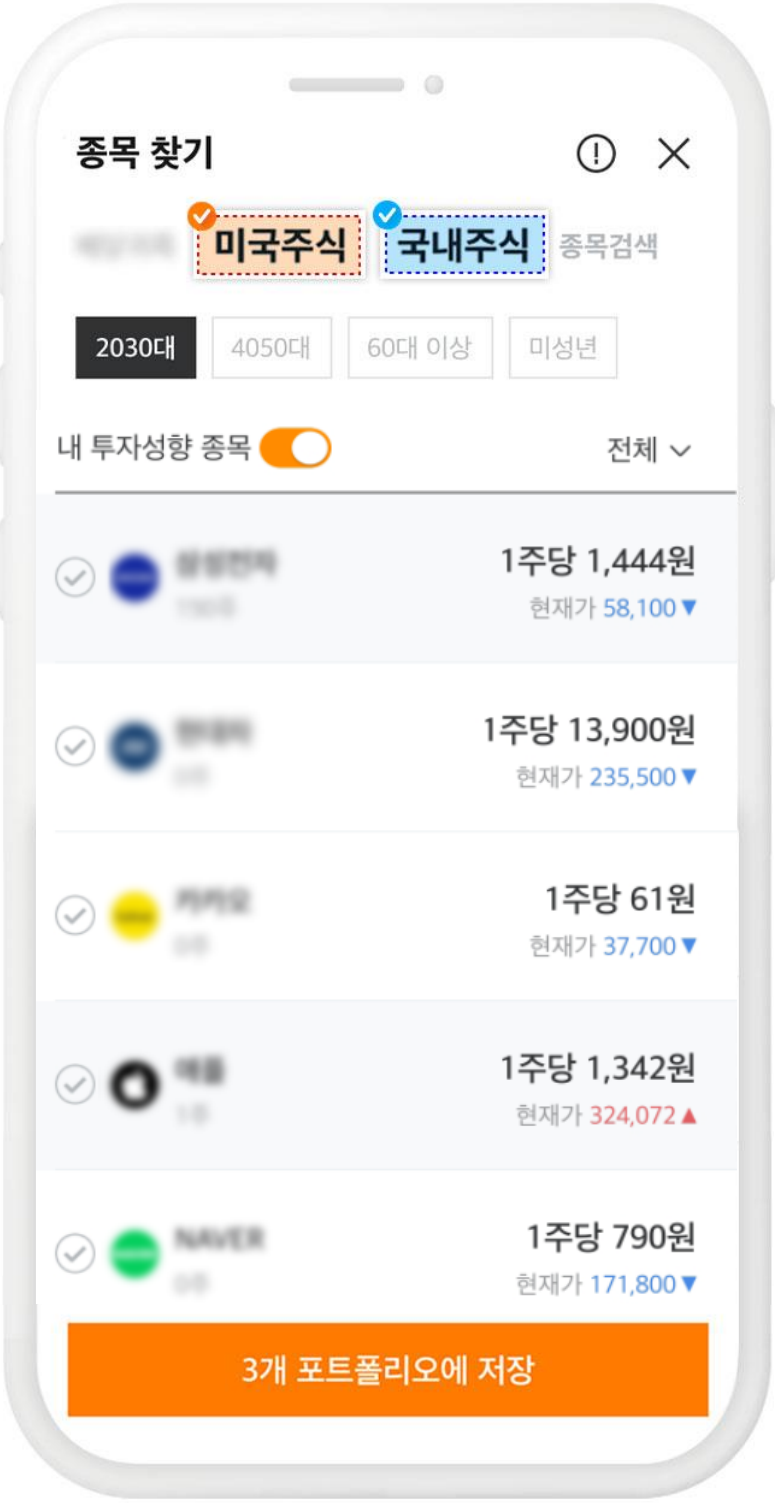
[1] 다른 증권사의 배당금도 한눈에 확인해보세요!

당사 배당플래너를 활용하게 되면, 나의 배당금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MY 데이터에 연결한 다른 증권사의 배당금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올해 월마다 얼마의 배당을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특정시기에 배당금이 몰린 경우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2] 다양한 종목을 검색해보세요!

당사 배당플래너에서는 배당률 높은 국내주식 뿐만 아니라 미국주식도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MY 배당 內 **배당상세 화면에서 배당금, 보유수량 및 배당지급일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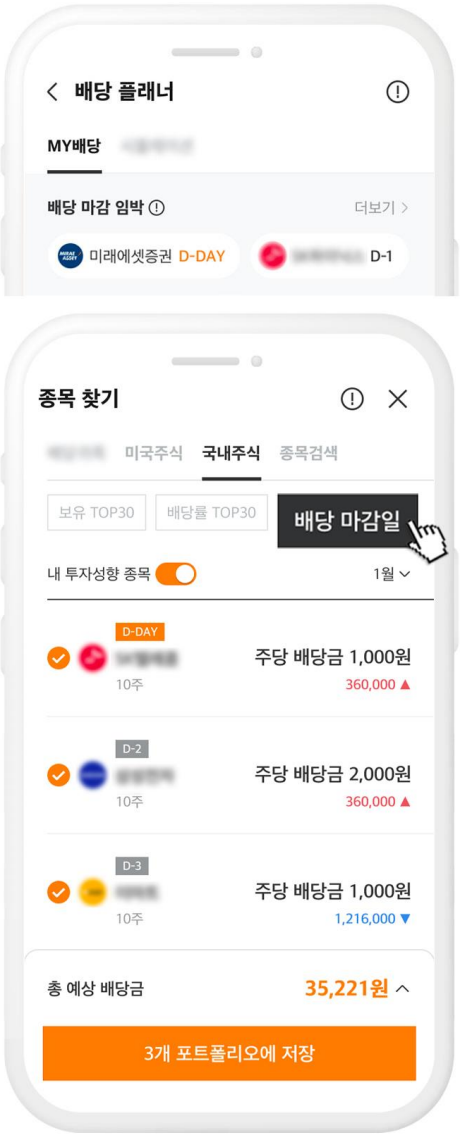


[3] 언제까지 매수할지 고민이신가요?

당사 배당플래너 內 배당 마감 임박 메뉴를 통해 **배당락일 1 영업일 전 날인 배당 마감일 정보를 추가해서 주식 매수 시점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5.10.22 기준, 배당플래너의 '배당마감일'은 '배당기준일'로부터 2 영업일 전 기준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과거 배당 정보 기반입니다. 실제 각 회사의 정관과 이사회 결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배당 투자 결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투자에 대해 당사는 법적/경제적 책임을 지지 않으며, 투자 결과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배당기준일: 회사가 배당금을 지급할 주주를 확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상법 제 354 조)로서 배당받기 위해서는 배당기준일에 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주로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해외주식/ETF 의 배당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미국: 주주 중심의 배당문화

주주 중심의 배당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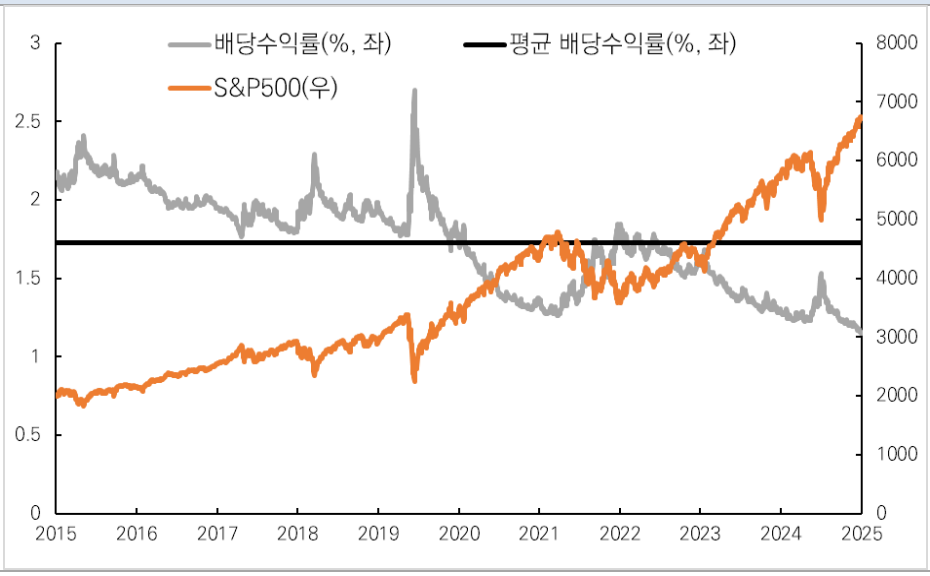
미국은 주주 자본주의로 상대적으로 한국보다 성숙한 배당문화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배당금 연속 증액 50 년 이상 종목은 배당왕 (Dividend King), 25 년 이상 종목은 배당귀족(Div′ Aristocrat), 10 년 이 상 종목은 배당성취자(Div′ Achiever)로 분류하며 배당귀족 /배당성취자와 관련된 ETF 도 존재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배당성장: 실적 성장의 바로미터

배당 성장에 중점

배당성장주를 잘 활용하면 배당금을 통한 현금흐름을 확보할 수 있으며, 추가로 시세차익까지 추구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 S&P500 의 경우 배당수익률 평균은 약 1.7%로 높지는 않지만 배당수익률은 1%이상 유지하고 있으며, 지수는 2015 년 10 월 9 일 기준 2014.89 에서 2025 년 10 월 9 일 기준 6735.11 로 약 3.34 배 상승했습니다.

S&P500 최근 10년간 배당수익률 및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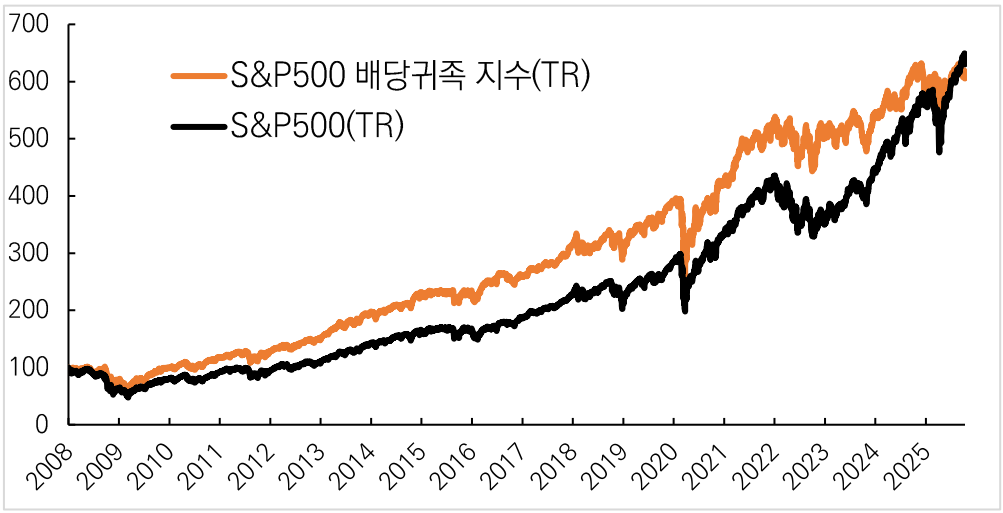
출처: Bloomberg, 기준일: 2015.10.9~2025.10.9

시장 하락 시 하방을 지지해주는 안전판 역할

주가 하락 시에도 배당 수익 기대

또한, 배당은 주가 하락 시 배당수익률 상승에 따른 매수세 유입으로 하방을 지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배당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8 년 이후 S&P500 배당귀족 지수는 S&P500 대비 상대적으로 적은 낙폭을 보였습니다.

2008년 이후 S&P500 배당귀족 지수는 S&P500 대비 선방



출처: Bloomberg, 2008.01.01 지수 = 100으로 환산

그렇다면 배당 관련 투자를 할 때 체크해야 할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1) 배당 수익률과 성장성 분석

배당 수익률이 높은 주식을 찾는 것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배당이 지속 가능하고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지 분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 배당 성장률과 이익 재투자율을 분석하여 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평가해야 합니다.

2) 배당금 지급 일정 파악 및 재정 계획 수립

두번째는 배당금의 지급 일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통한 재투자나 다른 재정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3) 기업의 재무 건전성 평가

강력한 현금 흐름, 낮은 부채 비율, 안정적인 영업 이익은 기업이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인 배당을 지급할 수 있는 기반입니다. 따라서 재무제표를 분석하여 기업의 장기적인 재무 안정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4) 균형있는 포트폴리오 구성 및 위험 관리

배당주에 과도하게 집중된 투자 포트폴리오는 다른 투자 기회를 놓치거나 특정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산업 및 자산 클래스에 걸쳐 투자를 분산하여 위험을 관리해야 합니다. **당사 '배당플래너'에서는 MY데이터에 연결한 다른 증권사의 배당금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의 포트폴리오를 전반적으로 점검해보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5) 세금 및 규제 이슈에 대한 모니터링

배당 수익에 대한 세금 관련 부분을 이해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해외 배당주에 투자하는 경우, 이중 과세 및 외화 환전 관련 규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배당주 투자는 단순한 수익 추구가 아닌, 재무 건전성과 장기 성장 가능성에 대한 깊은 분석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기업의 실적 변화, 배당 정책의 일관성, 그리고 포트폴리오의 균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당사 MTS 의 '배당플래너' 메뉴를 통해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이를 통해 보다 현명한 투자 결정을 내려 장기적인 재무 목표를 달성하는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 본 자료에서 소개되는 기업정보 및 종목정보는 이해를 돕기위한 자료로 투자권유 및 종목추천 내용이 없으며, 투자에 대한 최종 판단과 발생손실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미래에셋증권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전 상품설명서 등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자산가격 변동, 환율 변동, 부동산가격 하락,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국내 주식거래 시 수수료는 영업점 개설계좌 0.139%~0.49%, 다이렉트계좌 0.013%~0.49%(KRX, NXT 포함)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NXT(넥스트레이드)는 자본시장법상 다자간매매체결회사로 대체거래소(ATS: Alternative Trading System)입니다.
- 해외주식 거래수수료: 온라인 0.25~0.45%, 오프라인 0.5~1.0% (국가별 상이, 국가별 제비용 별도 발생, 자세한 사항 홈페이지 참고)
- 미국주식 거래의 경우 (매도 or 매수 or 매매)시 제비용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추후 변동 가능, 자세한 사항 홈페이지 참고)
- 증권거래비용, 기타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ETF 거래수수료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익금 분배방식은 투자결과에 따라 월지급액이 변동될 수 있으며,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하는 경우 투자원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 배당플래너의 정보는 과거 배당 정보 기반이며, 실제 각 회사의 정관과 이사회 결의에 따라 배당일 등에 대한 정보는 변동될 수 있으니 배당 투자 결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